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오쟁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쟁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오쟁이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오쟁이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20세기	현재
오쟁이			
오쟁이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오쟁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깊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 오쟁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오쟁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장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오쟁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오장이
18세기20세기
- 오쟁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오장이, 오쟁이



오쟁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변화

‘오쟁이’의 옛말 ‘오장이’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18세기에 모음 ‘·, ㅏ, ㅑ’가 뒤따르는 ‘ㅣ’모음의 영향으로 ‘ㅣ, ㅐ, ㅑ’가 되는 ‘ㅣ’역행 동화에 따라 20세기에 ‘오장이’가 ‘오쟁이’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오쟁이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오장이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오장이



출처 1764년이후 일동장유가 1:46

용례 01

66 문헌 용례

날마다 밤의 나가 오장이만 지우고서 밤 들기야 드러오디.

현대어 풀이

날마다 밤에 나가 오장이만 지우고서 밤 들개야 들어오되(날마다 밤에 나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밤 들어서야 들어오되).

20세기

오장이, 오쟁이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오장이, 오쟁이

출처 1912 추풍감수록 458

용례 02

66 문헌 용례

원리 숙성한 룡봉의 머리가 강림 도령이 다 되어 오장이만 짊어지고 나시면 못지 안코 전주 봉상서 싱강 말녀 온 총각으로 녀일 만하더라.

현대어 풀이

원래 숙성한 룡봉의 머리가 강림 도령이 다 되어 오장이만 짊어지고 나시면 못지않고 전주 봉상서 생강 말려 온 총각으로 여길 만하더라.

출처 1922 동아일보 1월 25일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어린 아해의 시태가 집 오장이에 너흔 채로 써 잇는 것을 배 부리는 사공이 발결한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7 동아일보 9월 26일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허지만 리 선생님도 정신 뱃작 차리지 안흐시면 오쟁이 지시리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0 조선일보 11월 3일 4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그래도 토지 날가리나 벼 오쟁이나 좀 직힌다고 하는 중산계급(中産階級)은 너나를 물론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오쟁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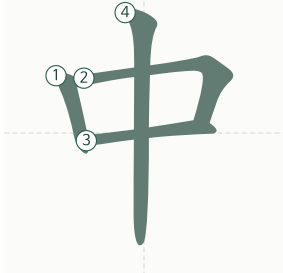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오쟁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1 / 1 · 4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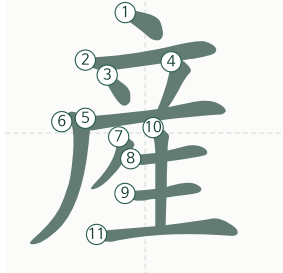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中 뜻·음 가운데 중
총 4획 · 부수 丨

hanja.wordrow.kr/한자/中/

産 뜻·음 낳을 산
총 11획 · 부수 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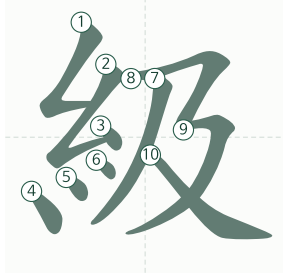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産/

階 뜻·음 섬돌 계
총 12획 · 부수 阜




hanja.wordrow.kr/한자/階/

級 뜻·음 등급 급
총 10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級/